

#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 존재로서 이미 충만하다(3부)

| 자형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자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에 관심이 많았고 한 번 사는 인생, 다 걸고 해볼 만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다 20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찾은 답이었던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서 7년간 활동하다 작년에 정리하고 나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 미내사 뉴스레터에 백일학교 모집공고를 보고 백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일학교 졸업 후 미내사 함양수련원에서 관성학교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일학교 생활을 통한 통찰과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편집자주).

(지난 호에 이어서)

편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자 네, 그 전에 공부했던 곳에서 깊게 교류했던 도반들이 있어요. 그 도반들도 오랫동안 마음공부를 한 분들이라 깊이는 있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 무언인가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백일학교 공부와 베이스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껴졌던 거리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부분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재하는 것이고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주어진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

고 있는 것이라 느껴졌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의 변화들은 무엇이나면, 도반들을 만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그 순간 그 흐름에 집중해요. 그러다보면 이야기들이 저절로 흘러가기도 하고 소통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어느 때에는 그냥 통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또 제 자신이나 제가 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궁금해하면 경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제가 갖고 있었던 기준들이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큰 것 같아요.

편 그러면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형님을 보고 어떻게들 이야기해요?

자 사실 제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실험 삼아 그래도 좀 교류가 있었던 도반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다라고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하기보단 상대가 정말 알고 싶어 하고 열려있는 상태일 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정도로 이야기해요.

또 가벼운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해주기도 하고 깨어있기 과정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설명과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한두 명 정도 깊게 교류하고 있고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편 이 공부에 있어 부족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자 백일학교 졸업 이후에도 종종 내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들도 계속 살펴 보니까 외부적인 대상들과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분명해지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 부족해, 뭔가를 더 알아야겠어’ 이런 흐름이 있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 설명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껴요.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에 맞게 적절한 답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라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 표현이 풍부해져야겠다고 다짐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편 그럼 다듬고 섬세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지금은 정해진 방법이 없는데, 얼마 전 월인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은, 전달을 위해, 다른 타입의 사람들을 위해, 책을 읽고 경험을 더 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 데이터들 내에서 저의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장하는 것. 또 그것을 말이나 글로써 정리하는 것.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과 안내를 해보는 것.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편 그동안 백일학교, 깨어있기, 오인회 참여를 계기로 자형 님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 삶의 변화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 가장 큰 변화는 뭔가를 찾는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을 그만둔 이후에 제 내면의 가장 큰 생각의 흐름 중 하나는 ‘그래, 뭘 하든지 성장이고 경험인데, 그럼 뭐든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영성과 관련한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현상이라는 것을 살펴본 후로는 그런 방향성과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 현상적이고 관성적인 흐름들은 남아 있는 부분, 살면서 다듬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듬고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교류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안내를 받고 또 귀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받아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상황이 된다면 그런 교류의 장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없으신 건가요?

자 네, 뭐 여기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고요. (웃음) 여기 오기 전에 홍보팀에서 일을 몇 년 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도 조



금 하고 있고 행사 있을 때 행사 진행하고 (웃음) 그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편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될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될 수 있다든지.

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라고요.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참 와 닿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실하고 바른 마음으로 탐구하는 걸음만큼 통찰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그 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나’라는 현상은 계속 변하는 거죠. 탐구가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느낌이 깊어짐을 체험하고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 얼마나 깊고 대단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경험이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그 그림자일 뿐이죠. 하지만 탐구가 세밀해지고 깊어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처음엔 잘 모르겠고 안 되는 것 같겠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와 닿을 거예요. 그러니 처음엔 막막하고 잘 모르겠는 느낌이 들더라도 깨어있기에서 안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편 끝으로 오늘 하신 인터뷰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자 개인적으로 허유 님과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처음이라 어색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웃음) 인터뷰를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느껴지는 것들이 감사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백일학교란 곳을 알게 돼서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탐구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귀한 인연들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고 감사하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속으로 하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다 걸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다냐. 하늘에서 인재를 이렇게 버려둬도 되는 거냐 하구요 (웃음) 그런데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제 삶의 흐름, 인연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월인 선생님, 성지 님, 도건 님, 시명 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